

사 진 자 료



총석정절경도

叢石亭絶景圖

Wonderful Views of Chongseokjeong Pavilion

김규진, 1920년, 비단에 채색, 195.5×882.5cm

등록문화재 제240호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이 1920년 재건된 창덕궁 회정당 접견실의 동쪽 벽화로 그린 것이다. 총석정은 강원도 통천군 해안가에 위치한 누정(樓亭)으로 관동팔경(關東八景) 중 하나이다. 육각형 돌기둥이 해안을 따라 무리 지어 늘어선 이곳의 기이한 경치는 예로부터 여러 사람에게 찬미 받으며 문학과 회화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김규진은 회정당 벽화를 그리기 위해 이미 여러 번 방문했던 금강산을 다시 찾아 스케치하였다. 특히, 총석정 경치를 그리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가 바다 쪽에서 바라본 경관을 사생하여 이 그림의 초본에 해당하는 <해금강총석도>를 제작하였다.

<총석정절경도>는 같은 시점에서 총석정 전경을 담은 <해금강총석도>나 총석정 사진과 비교하면, 오른쪽 총석 일부를 생략하고 왼쪽에 여백을 두어 바다와 하늘을 넓게 그렸다. 또 총석 사이의 간격은 좁히고 총석 높이를 과장하였다. 비단 7폭을 이어 만든 큰 화면에 수평 구도로 경치를 펼쳐내어 장대함을 연출하고, 총석의 수직적 높이를 강조하여 바로 앞에서 총석을 올려다보는 듯한 현장감을 자아낸다. 그물망처럼 그린 물결과 총석 표면에 찍은 녹색 점, 청록색 안료로 칠한 언덕의 표현에서는 전통적인 청록산수화풍이 엿보인다. 그러나 색조 대비를 통한 바위 질감의 사실적인 표현과 과감한 구도에서 김규진의 새로운 시도를 볼 수 있다.



금강산만물초승경도

金剛山萬物肖勝景圖

Extraordinary Views of Manmulsang, Geumgangsan Mountain

김규진, 1920년, 비단에 채색, 195.5×882.9cm

등록문화재 제241호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이 1920년 재건된 창덕궁 회정당 접견실의 서쪽 벽화로 그린 것이다.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만물초는 각양의 화강암 봉우리가 모인 기암괴석군으로 외금강(外金剛)을 대표하는 절경이다. 세상 만물의 모양을 모두 담고 있는 것 같다는 뜻에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 <금강산만물초승경도>는 7폭의 비단을 연결한 화면에 만물초의 경관을 그렸다. 첩첩이 포개진 험준한 봉우리와 울창한 산림이 부감하듯 펼쳐져 있고, 화면 하단에는 온정천(溫井川)이 흐른다. 묵직하고 날카로운 바위 봉우리가 겹쳐진 골짜기 사이로 흰 안개구름이 부드럽게 감아 돌며 흐르고 있어 화면에 리드미컬한 공간감과 신비감을 주고 있다.

김규진은 어느 곳에서도 한 눈에 조망할 수 없는 만물초의 광활한 풍경을 한 화면에 조화롭게 배치하기 위해 전도(全圖) 형식을 택하였다. 이는 경물의 형태를 분석하여 화면을 재구성하는 조선 시대 지도식 회화의 전통이다. 세밀한 필치와 화려한 채색이 주는 장식적 효과는 궁중회화의 특징이다. 그러나 바위나 산세를 묘사하는 특정한 서예적 필법인 준법(峻法)을 사용하지 않고, 사진과 같이 실제 바위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사생하여 그린 점에서 근대적 면모를 찾을 수 있다.



해금강총석도

海金剛叢石圖

Chongseok Rocks in Haegeumgang

김규진, 1920년, 종이에 채색, 37.0×335.0cm

개인 소장

1920년 여름, 김규진이 회정당 벽화 제작을 의뢰받은 후 이를 준비하기 위해 금강산을 돌아보고 그린 작품이다. 제발문의 내용대로 배를 타고 나아가 바다 쪽에서 보이는 총석정의 전경을 수평으로 긴 화면에 펼쳐 그렸다. 간결한 필선을 활용하고 넓은 바다를 여백으로 처리한 점 등은 초본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조선금강산사진첩』(1913)에 수록된 총석정 사진과 비교해 보면 돌기둥과 언덕, 나무 등 경물의 배치와 형태가 실제 경관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발 해석]

庚申初夏 因昌德宮熙政堂壁畫事 奉命入金剛之路 經到通川庫底 登叢石亭 觀水石之天下絕勝 駕小舟寫其全景起草 轉向金剛周覽 名勝各處數幅 而歸家乃引伸模寫 此畫及萬物肖全景 進獻掛御壁 留此草本以 供後人之記念 海岡

경신년 초여름 창덕궁 회정당 벽화일로 인하여 명을 받들고 금강산에 들어가는 길에 통천군 고저면에 이르러 총석정에 올라가 수석이 천하에 절승함을 보고 작은 배를 타고 그 전경을 그려 초본을 만들었다. 다시 금강산으로 향하여 그 명승 각처를 돌아보고 몇 폭을 그려 집에 돌아와 이를 확대해 그려 이 작품과 만물상 전경을 나라에 바쳐 궁 안벽에 걸고 이 초본은 남겨 후세의 기념으로 하다. 해강.